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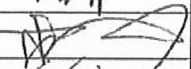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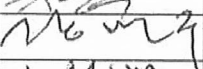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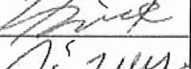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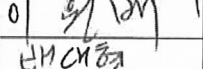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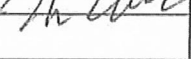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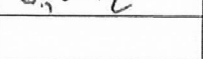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목	2016학년도 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일시	2016.1.21(목) 16:00-21:00
		장소	K동 206호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위원 요청자료에 대한 질의와 설명 2. 신입생 등록금 가고지에 대한 설명 3.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의결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위원의 요청자료에 대한 질의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이 2014학년도 등심위 합의사항인 '24시간 개방' 관련하여 2015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타 대학이 본교보다 24시간 개방한 건물이 많다고 함. - 사무처장이 타대학의 건물은 대학별,학과별로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학장(학과장) 책임하에 개방이 이뤄지는 등 건물의 기능에 따라 선별적으로 24시간 개방이 되고 시스템(무인) 경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건축대,미대생들은 야간작업이 많고 학과 특성상 작업물 품들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개방이 필요하며 학생회관도 대부분의 대학(여대를 제외)이 개방하고 있다고 함. - 사무처장이 24시간 개방은 학생안전지도, 학부모의 이해 등 학(과)장의 책임하에 진행, 관리되어야 하며 학과에서 본부에 요청을 하면 24시간 개방의 필요성과 경비문제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함. - 학생처장이 학과의 실험실습비가 학(과)장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관리되는 것처럼 건물의 24시간 개방과 공간활용의 문제도 실습비 운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미대, 건축대 등 건물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발생하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1차적으로 현재 건물개방시간을 23:00~05시를 24:00~06시로 변경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이용에 더 적합하다고 함. - 세종총학생회장이 세종캠퍼스의 경우 24시간 1교대 근무에 있어서 가면시간을 8시간 연속적으로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함. - 사무처장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카드로 출입한다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물의 24시간 개방이 가능함. 그러나 초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현재의 경비요원을 대폭 축소하고 순찰조만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용역회사의 인원 감축에 따른 해고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시스템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R동 미사용공간에 대해 지적하고 공간활용 상황에 대해 문의함.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이 과거 임대공간이었던 13~15층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부속학교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하공간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임. 그리고 오래된 각 건물을 대상으로 리뉴얼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함. 시기는 미확정이라고 함. - 총학생회장이 R동 유휴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하캠퍼스 조성 신축 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시 학교가 발전논리로 건물을 쌓고 학생들에게 공간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므로 학생들이 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 기획처장이 주요 안건인 신입생가고지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총학생회장이 신입생가고지에 동의하기 전에 2016년 건축비의 지출은 건축기금 이자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럴 경우 6.5% 등록금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정보공시에 공개된 자료 중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 기금적립액, 기금인출액 등 타 대학과의 비교자료(서울 시내 11개 대학)를 등록금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함. - 총학생회장이 최근 3년간 기금적립액이 1위, 최근 3년간 기금인출액 11위, 교육비환원율 11위,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 11위라는 저조한 지표에 대해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그리고 과거에 제2,제3기숙의 신축 경비는 건축기금을 최대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매년 건축기금의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며 제3기숙사의 건축비는 건축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사무처장이 본교의 교육비환원율이 저조한 것은 타 대학에 비해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수주실적이 낮은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산학협력단의 수입 확대를 위한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산학협력단을 제외하더라도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와 교원인건비 비중이 낮고 후생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등 교육비에의 투자가 미진하기 때문에 교육비환원율이 낮다고 말함. - 교학관리처장이 세종캠퍼스의 경우 대학구조개혁 이행과제 컨설팅에 의하면 2017년 사립대학 평균인 교육비환원율 156%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서울캠퍼스의 경우도 유사하게 진행될 거라고 함.
-------------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이 교육비환원을 등 본교의 재정정량지표의 목표값은 적어도 사립대학 평균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교원채용 관련하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의 목표값을 회의록에 명시하자고 요청함. <p>2. 2016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이 2016학년도 가예산안의 산학협력단전입금 수입과 기숙사관리비 수입에 대해 문의함. - 간사가 산학협력단전입금은 산학협력단의 누적이익잉여금을 교비로 전출하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재정이 확대되어 교육비환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기숙사관리비 수입은 기존 기숙사 외에 3월에 제2기숙사가 오픈할 예정이므로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대여사용료 수입이 당초대비 16억 증가한 내역을 문의하자 간사가 대학로 후생편의시설 임대료수입 10억 및 국제언어교육원 시설사용료 6억이 증가한 것으로 답변함. - 총학생회장이 기계기구매입비 및 집기비품매입비가 당초대비 미집행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고 교육환경개선용 기자재구입 예산의 추가 집행을 요청함. - 간사가 2015학년도 1학기 상당액을 선집행하여 2014학년도 결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당초대비 기자재 15억, 집기비품 17억 미집행 차액이 발생한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은 일정상의 문제로 어렵다고 함. 단, 기자재 및 집기비품 구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액을 다소 초과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 총학생회장이 교육용기자재 및 집기비품 구입 관련하여 본부에서 각 학과로의 공문발송을 요청하였고 교육용기자재는 교무처에서, 집기비품은 사무처에서 진행하기로 함.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있어 학생측이 자료를 다시 수합하고 정리하여 학교측에 전달하기로 함. - 총학생회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액을 수정, 변경할 수 없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분기 혹은 반기별로 개최하여 등심위에서 심의의결된 2016년 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되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니 2학기 시작 전후해서 1~2회 정도 등심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함. - 기획처장·간사가 분기 혹은 반기 시점에서는 당초 예산액대비 집행실적이 미진하여 예산검토가 어려우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함.
------	---

<p>주요내용</p>	<p>3. 제2기숙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이 제2기숙사 관리비의 책정기준에 대해 문의함. - 사무처장·학생처장이 서울에 소재하는 12개 대학의 학교가 건축한 기숙사 중 2인 1실 기준의 1인당 면적이 3평 이상인 대학들의 평균 기숙사비와 제2기숙사의 1인당 면적을 곱하여 산출했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본교 제2기숙사와 중앙대 기숙사(블루미르홀)의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기숙사관리비의 가격이 높다고 주장함. - 중앙대 기숙사의 복지시설은 사생들만 이용 가능하며 전액 무료라고 하며 제2기숙사의 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함. - 사무처장이 체력단련실 등 부대시설은 일반인들도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교육비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중앙대의 기숙사의 식당 단가는 사생의 경우 2,500원(월35식) ~2,700원(월15식)이고 일반인은 2,800원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며 제2기숙사의 식당단가에 대해 문의함. - 사무처장·학생처장이 식당단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후생편의시설업자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식당가가 높게 형성된다고 하며 식당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적게 받아야 한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기숙사비도 비싸고 부대시설도 유료로 사용하며 기숙사 식당의 가격도 높고 관리직원도 1명 밖에 되지않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숙사비의 할인 요인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사무처장이 기숙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와 사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규직원을 보충할 계획이 있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흥대의 기숙사가 착한 기숙사, 자랑할 수 있는 기숙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숙사비의 가격을 낮추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만족감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함. - 기획처장이 제2기숙사는 본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학생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협의와 고심 끝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기숙사비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함. 책정된 기숙사비에 걸맞는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함. - 교학관리처장이 세종캠퍼스의 기숙사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불편이 많고 공실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 - 총학생회장이 학교가 교육비로의 투자에 인색하기 때문에 본교의 대부분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만큼의 교육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졸업 후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에도 인색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함.
-------------	---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장이 졸업생들과 교직원들의 학교에 대한 기부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타 대학처럼 학교발전기금 모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 - 부총학생회장이 중앙대 기숙사를 학교와 함께 실시하여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분석해보자고 학교측에 제안함. - 총학생회장이 결론적으로 학교가 교육비환원을 제고를 위해서는 건축기금이자액을 건축비로 충당하고 여기에 사용될 교비는 인건비, 시설비 등 교육비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함. 이를 위해서는 2016학년도 예산의 건축기금 인출액과 건축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예산자료의 제공 시기에 대해 문의함. - 간사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후 제출한 세종캠퍼스의 이행과제 계획서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예·결산서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로 분리하여 제출해야하므로 지연되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하기로 함. 					
<p>협의 및 의결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6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가고지에 대해 동의함. 2. 2015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함. 3.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용기자재 및 집기비품 추가 구입과 관련하여 본부(교무처, 사무처)에서 각 학과로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3. 2016 예산서에 반영할 학생측 요청자료를 차기회의에 제시하기로 함. 4. 차기 회의는 2월 4일 목요일 14시에 개최하기로 함. 					
<p>참석위원</p>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오 이 석		위원	류 종 옥	
	위원	이 선 우		위원	강 민 구	
	위원	전 성 표		위원	이 원 배	
	위원	김 도 영		위원	백 대 현	
	위원	심 재 익				
<p>참석현황</p>	참석대상	9명	참석	8명	불참	1명
<p>작성자</p>	간사 정종혁		작성 연월일		2016.01.31.	